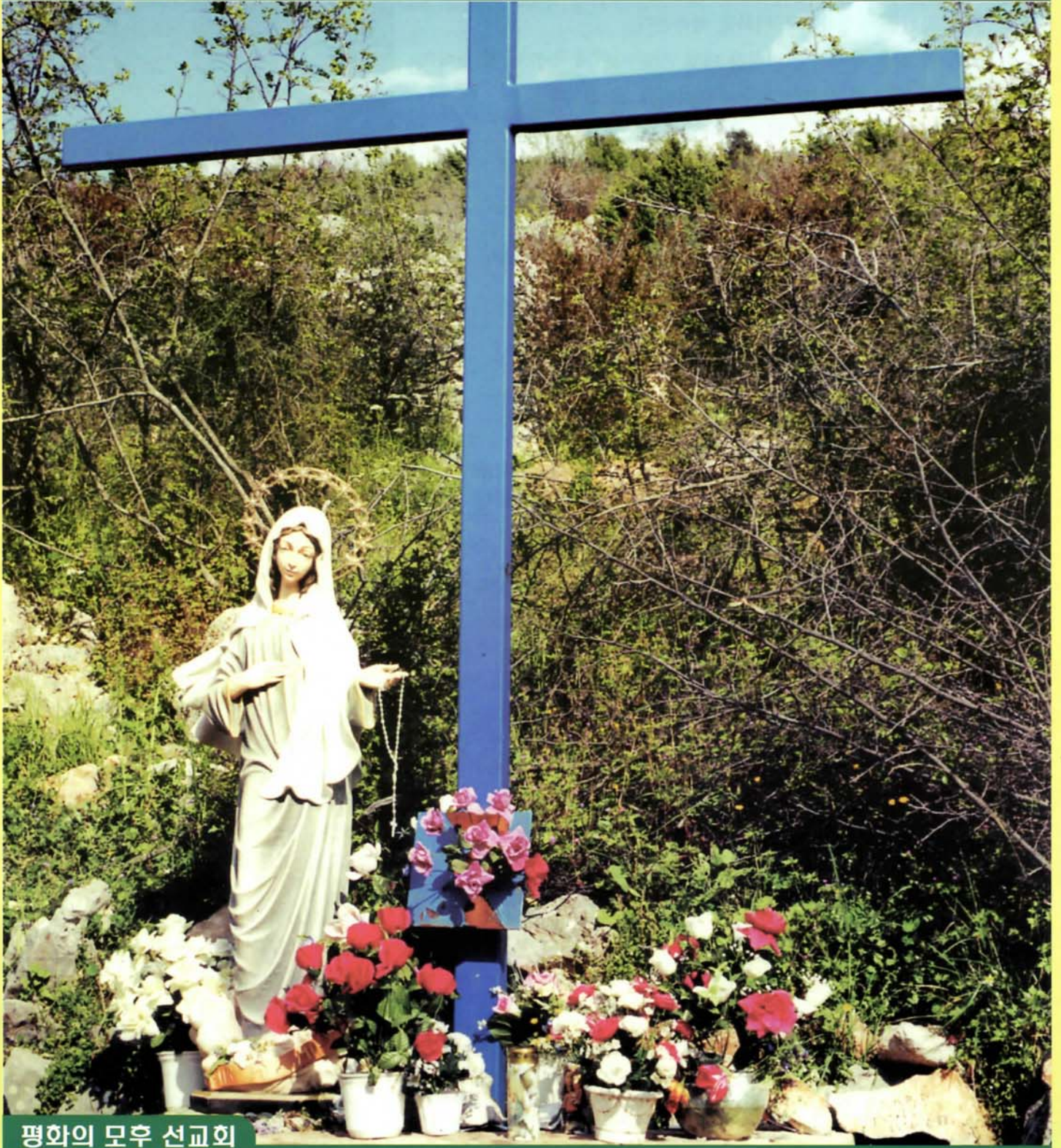


메주고리에



Medjugorje

JUNE, 2004 제 21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세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나의 성심과 내 아들 예수님의 성심에
너희 자신을 봉헌하라고 너희를 재촉한다.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가 매일 매일 나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통해서 기쁨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너희는 평화와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2004년 5월 25일 성모님의 메세지



“성체의 해”

6월 10일 바티칸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성체축일을 맞아 전세계 가톨릭 교회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성체의 해로 기념할 것을 선포하셨다.



이 날 교황님께서 성 요한 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시며, 오는 10월 10-17에 멕시코 GUADALAJARA에서 열리는 국제성체회의를 기점으로 성체의 해가 시작되며 2005년 10월 2-29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리는 주교회의로 끝 맺을 하게 됨을 말씀하셨다. 또한 이 때 주교회회의의 주제는 바로 삶의 근원이자 절정이며 교회의 사명인 ‘성체’가 될 것임을 덧붙이셨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자들에게 교회가 성체로서 생명을 얻음을 상기시키고 이 성체성사가 당신의 성직사명의 핵심이며 2003년 교회회람에 반영 되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시며 오직 이분만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세상에 살고있는 모든 인간의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피를 인류를 위해 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의 식탁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은 그 분의 현존하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라고 설명하셨다.

사도 시절부터 이어온 관습대로 교황님께서 성 요한 대 성당 및 성 마리아 성당에서 거행된 미사의 성체성사를 직접 봉헌하셨다.

ZENIT NEWS FROM ROME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1) 남편의 도박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 2) 매티유, 안셀모 엄마의 치유를 위하여...
- 3) 병중에 있는 엄마의 치유를 위하여...
- 4) 메주고리에에서 8월에 열리는 세계 청소년대회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삶의 참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 5) 아들의 성소를 위하여...
- 6)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을 위하여...
- 7)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 8) 크리스 신부님의 치유를 위하여...
- 9) 어릴 적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들의 내적 치유를 위하여
- 10) 동생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립될 수 있도록...
- 11) 성모님, 집을 나간 조카를 지켜주세요.
- 12)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을 위하여...
- 13) 조카의 사제성소를 위하여...
- 14) 성모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딸을 보살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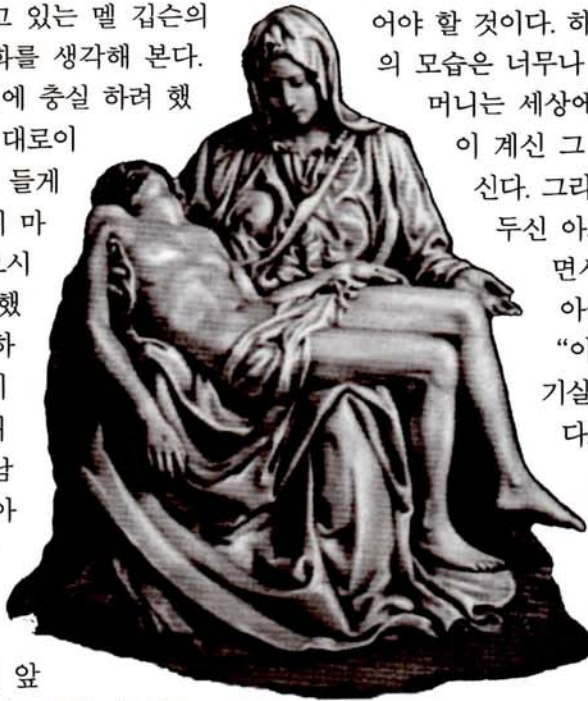
성모님의 모습

포트랜드 한인 천주교회 주임
김 승주 신부

지금 세상의 화제 거리가 되고 있는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수난”이라는 영화를 생각해 본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성서에 충실 하려 했다” 는 말을 했다. 과연 그의 말 대로이며 지극히 성서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다. 그래서 그 느낌이 마치 나도 예수님께서 수난을 받으시는 현장에 있는 듯이 더욱 강렬했는지 모른다. 특히 말없이 침묵하시며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아드님의 피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받아 안으시듯이 묵묵히 닦아내시는 어머니의 모습. 못 박히는 아드님 앞에서 두 손 가득히 흠을 움켜쥐며 고통을 속으로 삭이시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오,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심장에서 나온 심장이요 오, 내 아들이야, 나도 너와 함께 죽게 하시오...”

절규하시며 예수님의 발에 당신의 입을 맞추시고 피 묻은 입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시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속담에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자녀를 앞서 보내는 부모의 극심한 심적 고통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어찌 한국 부모들에게만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겪어 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의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러하셨다. 비통이 극에 달하여 처절한 오열을 터트리거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들과의 이별 앞에서 그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절규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복음서가 전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버림 받고 죽어가는 아드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아래 침묵하시며 서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신 아드님께서 당신 제자를 지칭하시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에게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기실 때에도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신다. 사실 성서를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우리는 복음 사가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로 쏠려 있었기에 굳이 어머니 마리아께

중심을 두어 그 관심을 흐트리려 하지 않았었으리라 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을 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순간, 죽음의 순간은 일상적인 어느 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어쩌면 가장 다급하면서도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열쇠를 루카 복음 2장 51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열두살이 되시던 해에 과월절을 지내러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명절 기간이 다 끝나 돌아오는 길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생각했던 부모는 하룻길을 다 온 후 저녁에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친척이나 친지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되짚어가며 아들을 찾아 헤맸으나



메우고리에 자녀들이여...

찬미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로렌은 네덜란드의 큰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여인이다. 그녀는 독신이고 고스파(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열성을 다 바쳐 전하고 있다. 그녀는 한시도 소비하지 않고 성모님을 섬기며 일한다. 여기 그녀의 체험을 나눔으로서 우리의 자유시간들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 솟기를 바란다.

저는 지난 15년간 텔레비전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 4개월 전에 다시 구독신청을 하였습니다. 제 목적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접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4개월 후에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제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나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해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도무지 저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한 시간 본 후에 매 번 일어나는 것은 기도 할 수가 없어 지는데 그것은 저의 마음이 굳어지고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단절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도 할 수가 없어 지는데 그것은 제 자신이 무척 혼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TV를 볼 때 세상의 영이 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TV를 키는 순간 저의 자신은 세상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은 제 안에 있는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 하나 잡아 먹기 시작하고 저의 마음을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TV구독을 취소 하기로 마음 먹고는 즉시 행동에 취

하였습니다. 금방 취소하고 나자마자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빛으로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하늘이 나의 결정에 동의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한시간을 뉴스에 소비하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묵주한 꾸러미를 저녁마다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TV를 보면서 흘러버렸지만 이제는 나의 시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주기도를 계속 드렸더니 단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 올랐습니다. 이제 아주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몰들하면 그것으로 힘을 받아 다른 것에도 몰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올리는 묵주기도는 저에게 힘을 주며 성모님이 청하시는 빵과 물로 단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저의 삶으로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기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TV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등을 보면서, 구독 취소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TV를 볼때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오는 악령들로 부터 보호되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여러가지 쇼를 통하여 아주 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80년도에 고스파(성모님)는 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TV를 없애거나 완전히 보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엄마로서 당신의 자녀들 중에 우울증이나 심한 고독증을 앓는 이들은 이 TV를 통하여 듣고 사람들을 보는 것을 아신다. 그외에도 어떤 프로그램들은 굉장한 도움을 준다.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단식하는 날에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만일 너희들이 빵과 물로 단식 할 수 없다면, 다른 것들을 포기 할 수 있다. TV을 안보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은 이 것을 보고 나면 너희들의 마음이 무척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되고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1981년 12월8일)

- "만일 너희들이TV 프로그램을보고 신문을 보면, 너희들의 마음이 뉴스로 가득 차 너희마음에 내가 들어 갈 자리가 없어진다."(1986년 4월 17일)

지난 7년동안 젊은이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이끄셨던 성모 마리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모든 욕정과 지나친 갈망들을 모두 버려라. TV을 멀리하되 특히 악한 프로그램들 멀리하고 지나친 운동 경기, 과음과 과식 그리고 부당한 술과 담배... (1983년 6월 6일 제리나 비실지을 통해 주신 말씀)"

성모님께서서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대 축일을 맞이하는 9일전 부터는TV를 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이때 가족이 함께 모여 손에는 성서를 들고 오시는 주님께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라신다. (유대인들 처럼)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에게 보내는 로렌의 다른 편지를 펼쳐본다.

"저는 밤에 아무리 늦었다 해도 한시간씩 꼭 기도하고 잡니다. 이시간이 기쁨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시간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접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화 같은 것을 통하여.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것은 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담그고 난 후라고 봅니다. 기도가 우선적이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모두 따라 옵니다!!



확실히, 저는 남과의 대화와 기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자유로움을 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게 하든지 말든지 하실 것 입니다."

지극히 사랑이신 어머니,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극하신 여왕이시여, 그리고 우리들이 대화에 강복하시어 서로를 축복해 주소서! M

엠마누엘 수녀

[Http://www.childrenofmedjugorje.com](http://www.childrenofmedjugorje.com)
dnolan@childrenofmedjugorje.com

다섯개의 조약돌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
종교 교육학박사
옥수동 본당 주임



올해로 발현 23주년이 되며 지금도 발현하고 계시는 메주고리에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서서는 그 동안 수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만능주의로 죄의 분별조차 희박해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로 돌아오라는 회심의 부르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회개해라. 는 그 메시지를 지금껏 전하고 계십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가지의 조약돌 즉, 기도, 단식, 매일 성서 읽기, 성체성사 그리고 고백성사, 이 메시지가 영적 쇄신의 무기이고, 전반적인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분을 맛들이고 궁극적으로 그 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묵주 기도를 하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에는 없고 오직 우리 가톨릭에만 있는 이 묵주 기도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묵주 기도의 묵상 내용들은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누구나 쉽게 기도의 맛을 들이게 됩니다. 부부가 집에 모셔진 성모상 앞에서 함께 묵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다가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손에 묵주를 들고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체 성사입니다.

미사 때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 미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신 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주일 미사에 참여합니다. 정말로 귀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늦은 시간에, 아니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끝나기도 전에 영성체만 하면 그냥 내빼는 그런 성체 성사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 전 30분도 좋고 좀 일찍 와서 성서를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미사를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목소리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체를 모시려고 한다면 그 미사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미사가 끝난 후에도 그냥 밖으로 뿔 하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한 주간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 예수님은 매 미사 때 마다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를 사해주려고 흘리는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하여 성체 성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성체 성사에서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성서를 읽는 것.

우리 신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서를 자주 봐야 합니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시면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건네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서는 매일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느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매일 매일 한 장도 좋고 5분 10분도 좋고 성서를 읽으면 그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단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단식을 하도록 가

르치고 있습니다. 단식은 나 자신보다는 하느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식은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우리들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외적으

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단식은 이기적인 나를 포기하라는 하느님의 요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과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충분한 재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한 쪽으로 몰려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너무 먹고 먹어서 비만을 앓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너무 못 먹고 너무 없어서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식은 바로 이런 현실이 하느님이 원하신 세상이 아니고 그 반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나눔의 삶을 살도록 초대합니다. 단식은 꼭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로, 술로부터, 도박으로부터, 과도한 쇼핑과 사치로부터 우리는 단식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쇠신되기 위해서는 고백 성사를 자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매달 고백 성사를 권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도 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죄의식이 없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고백 성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성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사제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당신과 화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성사가 바로 고백 성사입니다. 제가 부제품을 앞두고 한달 피정을 할 때 어느 피정 지도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생각하면 그 크기가 너무도 커서 놀란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려고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용서하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의 죄가 서울만 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태평양만 하다. 서울을 태평양에 던져 넣으

면 표시가 나겠는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다. 고백 성사는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바다에 우리를 완전히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협조자이시고 예수님께 가는 가장 쉽고 빠르게 완전한 길이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찬미 예수님 성모님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과 미카엘라 자매님에게,
십여 년을 같은 성당과 구역에서 한 가족 같이 지내던 두 분이 서쪽구역을 떠나니 서운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발 길을 옮기며 살아 가시는 두 분을 어떻게 인간적인 아쉬운 울 마음만으로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두 분을 생각하니 우리들의 고향인 메주교리예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를 하려니 많이 바빴을 텐데 도와 주지도 못했군요, 얼굴이나 보려니 했던 마지막 구역모임도 참석 못하고 송별식도 없이 헤어져 구역 식구 모두가 아쉬워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서운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마음이나마 전하고자 2003년도 구역회비의 남은 잔액 (\$586)을 성모님의 말씀을 전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보내기로 구역 식구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만장일치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부디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보살핌으로 늘 건강하시고 또한 귀여운 크리스가 언제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 안에서 함께 하겠어요, 구역을 떠났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기도 안에서 성모님의 사명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2004년 1월16일 서쪽 구역장 정 크리스티나 드림 M

사제들에게 주는 성체의 메시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
(서울 대교구)



- 성체는 사제들의 마음과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다.

2003년 10월, 저는 전 북미지역 한인 교우들의 메주 고리에 순례 그룹에 지도 신부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한국에서 온 다른 그룹들과 함께 한국어 미사를 하고 제의방을 나오는데, 한 외국 여인이 저를 붙잡고 무엇인가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라는 제목의 소책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다른 세 분의 한국 신부님들이 나가셨을 때에는 주지 않았던 책을 왜 저에게만 주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했고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말로 "왜 저에게 이 책을 줍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듣고 신부님께 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여 그 여인의 이름과 주소를 책에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이탈리아 북부의 볼자노(Bolzano)에서 살고 이사벨라 디 콘자(Isabella diConza)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좀 이상한 사적 계시가 아닌가는 의구심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어 보니까 교회의 교의와 어긋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 메시지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내용들은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알고 또한 모시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메시지를 들었고 전했는 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의 첫째 장 밑에 이런 각주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성체에 대한 신심이 강한 사람의 영

적 지도 신부를 통해 퍼졌다. 이 사람은 겸손과 신중함을 지니고 익명성을 유지하기를 좋아한다."

※ 이 성체의 메시지는 1993년 4월 27일부터 2000년 5월28일까지 26번 주어졌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오, 지상의 모든 사제들은 나의 사랑에 너희의 심장을 완전히 열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직무는 직업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순수함을 통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유익하게 해야하는 커다란 선물이다. 너희가 나의 몸을 만지고 그것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며,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또한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기심과 자만을 계속해서 죽이고 겸손한 이, 겸손한 목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내 안에서, 제대 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통하여 좀 더 강하게 또한 좀 더 멀리 있는 모든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 금욕을 하여 너희 마음들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몸의 금욕을 통해 성령을 높이 올려야 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 마음에 좀 더 안정되게 머물 수 있다. 나를 닮고, 나를 단순히 먹지만 말고 나를 찬양하여라.

나는 생명의 빵이며,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양식을 준다.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며, 너희는 겸손과 변화의 참된 열망과 함께 그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모든 어린양들이 성인과 성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나의 심장에서 보호하고 지켜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커다란 은총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는 단지 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너희 사람의 왕이며 주님인 내 곁에 계속해서 있어라. 너희를 모든 축복으로 축복하고 나의 어머니의 모

“

너희가 나의 몸을 만지고 그것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며,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때, 또한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기심과 자만을 계속해서 죽이고 겸손한 이, 겸손한 목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내 안에서, 제대 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

성의 망토 아래 너희 모두를 둔다. 너희는 항상 믿음과 강함과 용기를 지녀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멘.

1993년 4월 29일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한 성체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다시 쏟아진다. 완벽한 인간성을 통하여 육신을 취하고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몸과 영을 통해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채운다. 이는 그의 구원 말씀의 세상을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음식인 내 생명을 준다. 너희는 이 선물을 마음의 순수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낸다. 세상의 것들은 생명의 유일한 선인 나로부터 너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이다. 길을 잃은 후에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항상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성화시키기 위해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이며, 사랑이 육화하여 사랑으로 선택한 이들인 너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 이 사랑은 오직 내 안에 머문다. 생명의 달콤한 음료로 내 사랑의 모든 생명을 다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나는 너를 성체를 통하여 나에게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내 몸과 피에는 길을 잃고 더욱 굳어진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생명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며 다시 주는 나의 사랑의 힘이 있다. 여기 세상에 들어가는 평화가 있다. 빛나는 빛이며, 뜨거운 열을 내는 불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너희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지니고 내 곁에 있어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버려라. 너희 삶의 매 순간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여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완벽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완벽하다. 나는 내 성심으로 항상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한다. 아멘

1993년 5월 2일

사랑 가득한 내 성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 사랑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채워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내 성심과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잊는다: 나누어진 빵과 흘러나온 피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새로운 생명, 내 생명으로 너희 자신을 다시 채우기 위함이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며 나의 사랑의 합당한 직무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은 너희를 위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강함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며, 마치 초기의 사도들처럼 용기를 지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낮과 밤, 나를 찬양하기 위해 나에게 오너라. 왜냐하면 내 성심에 대한 찬양을 통하여 나는 너희에게 너희를 성화하는 무한한 은총들을 주며, 모든 행위 안에서 십자가의 용기와 힘이 생기게 한다.

나를 찬양하고 나를 찬미하는 모든 천국의 달콤한 현존을 나에게서 함께 맛보아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참으로 살아있는 내 현존을 모든 너희 형제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내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이 같은 환희를 경험하게 하리라. 마치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처럼, 그리고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나는 너희를 찾고 기다린다. 늦지 말아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많은 선물을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매 순간 나의 삶을 살고 나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지상의 모든 형제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한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내 성심으로 너희를 보호하며, 열성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이 달에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하시는 내 어머니의 모성적인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위탁한다. 아멘. **M**

메주고리에 발현증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1993년

이 글은 메주고리에 홈페이지의 "Scientific Studies Done on the Visionaries"를 우리 글로 옮긴 것입니다.

Michael W. Petride씨는 Living연구소에서 뇌편측성과 시각지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부를 했고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지금은 Connecticut Norwich교구에 있는 가톨릭 자애 병원의 외래환자 정신건강 치료업무를 지도하고 있다.

다음은 1993년 9월 10일자로 작성된 가톨릭 문헌에 실린 그의 논평이다. 메주고리에의 발현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써, 프랑스의 Montpellier 대학의 Henri Joyeaux교수가 조사팀을 지휘했고 이태리의 Frigerio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발현의 규칙성은 일관성이 있었고 매우 신뢰할만한 현상들을 보여주었다. 성모님이 발현하셨다고 추정되어진 때로부터 0.2초 이내에 5명의 목격자들은 동시에 동일 장소(비록 참고할만한 지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를 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시성은 외부 물체가 그들의 시선을 붙든다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으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또한 같은 0.2초 이내에 목격자들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고 눈의 움직임은 중단되었다. 전체 발현시간 동안(3~45분) 눈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발현이 끝나갈 때에는 목격자들의 머리와 위 쪽으로 움직이는 응시 지점이 함께 위로 움직였다.

발현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눈동자는 1분에 15 - 20회 정도 눈을 깜박여 각막을 적셔주지 않으면 말라버리지만, 발현 동안 그들에게는 눈물 분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머지 다른 목격자들은 정상 속도의 반 정도로만 눈을 깜박였다.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눈을 깜박였지만 발현 동안에는 눈을 만져도 깜박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압력에 대한 각막의 민감성이 완전히 없어진다.)

발현 동안에는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었다. 피부에 외상을 주거나 압통계를 사용하여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극을 주어도 자극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발현 목격자 모두가 통증에 정상적으로 반응했다. 청각 실험으로는 발현 전에는 목격자들이 정상적인 청각 기능을 보여 주었으나 발현 중에는 큰 폭발음에 해당하는 90데시벨에도 반응이 없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청각 기관의 전위측정(귀의 전기적 활동)에서도 발현 전에는 정상적인 귀의 활동을 보여 주었으나 발현 동안에는 내이(속귀)로 전달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청각의 뚜렷한 정지는 생리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뇌전도 검사(EEG)는 목격자들의 뇌기능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이들이 정신병적인 환각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발현 동안 이들은 수면 상태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히스테리적인 신경반응이나 병적인 무아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검사는 확인해 주었다.

발현 전의 뇌전도 검사는 주로 베타리듬을 보여 주었고 알파리듬이 사이사이에 산재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상 의식 상태). 발현이 시작되면 베타리듬은 바로 거의 방해 받지 않는 알파리듬으로 대체되었다. 알파리듬은 대부분 휴식이나 명상 중에 관찰되는 리듬으로써, 이런 혼란스런 반응을 얻기 위해선 보통 연습이 필요하다. 발현 중 목격자들은 전 과정 동안 눈을 뜬 채로 있었으므로 뇌가 전적으로 물체를 보는데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뇌파가 알파리듬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사물을 보는 시각 자극은 보통 알파리듬을 방해하므로 눈을 감아야만 알파리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감각을 더 실험하기 위하여 발현 동안에 목격자들의 눈 앞에 1000와트의 전구를 놓아 보았다. 1000와트의 전구는 눈에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눈을 자주 감



발현 동안 이들은 수면 상태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히스테리적인 신경반응이나 병적인 무아지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검사는 확인해 주었다.

박이게 만들고 알파리듬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1000와트의 자극에도 눈의 깜박임이 전혀 없었다. 또한 동공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밝은 빛에서는 으레 그러하듯 동공은 수축했지만 1000와트의 조명에서도 알파리듬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뇌는 동공의 반응에 대해 빛을 감지해야 하지만 뇌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강한 자극에는 상당한 피부 외피의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발현 중에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다. 발현 동안에 또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다. 그것은 그들이 발현을 목격하는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근육(턱, 입, 목구멍의 근육)이 사용되었지만 후두는 닫혀 있었다. 이는 불가능한 일로써 후두부는 말하는데 사용되는 다른 근육과 신체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현 동안 후두는 소리를 내는 기능을 멈추어버리게 된다. 한 가지 예외는 목격자들이 동시에 입을 모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주님의 기도를 합송할 때 뿐이었다. 이를 나중에 물어보니 성모님께서 목격자들을 안내하여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한 것이라 했다.

요약하면 과학적 조사에 따른 특이한 현상은 신체 어느 부분도 발현 경험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학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하는 기도, 부분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들만이 듣고 접할 수 있는 별개의 사람과 목상 중에 있는 상태" 라고 정의했다.

조사 후 14년이 지난 교회의 현재 입장은 일종의 잠정적 승인이다. 교황과 전 교구 주교는 메주고리예를 합법적인 순례지로 대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메주고리예의 열매를 매우 강하게 믿고 있다. 교황님은 공산주의로부터 조국 폴란드를 구해준 것에 대해



성모님께 감사 드리고 있다. "그 모든 것은 제가 아니라 파티마와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덕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메주고리예는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주신 메시지의 연장이고 그것이 실천되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 **M**



주교님들의 메주고리에 방문

이 기사는 지난호 (20)에 실렸던 필리핀의 알라미노스의 Cabrera주교님 메주고리에 방문 체험기중 편집과정의 실수로 기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필리핀 Cabrea 주교님

"저는 책에서 메주고리에 대한 글을 읽었으며 이곳을 방문했던 순례자들에게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많은 신자들의 가정에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상이 있으며 우리도 이미 그 성모님 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가 그만큼 잘 알려진 것이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단체가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었지만 사제는 저처럼 지도신부로 온 것이었지요. 그 사제는 산에 가서 기도하며 성모님께 여쭙어 보았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인데 부자들만 메주고리에에 올 수 있나요? 가난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는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단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가신답니다! 여건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는 은총이지만 성모님께선 이곳에 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가신다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에 대한 필리핀 교회의 공적인 생각은 로마와 같습니다. 로마는 메주고리를 아직 공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보다 나은 신앙생활에 대한 감명을 받고 있고 교회는 누구라도 이곳을 오는 것을 막지 않으며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밝혀진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인 한계에 있는 한... 이곳을 다녀간 우리 신자들이 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

는 것을 보곤 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들과 교회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메주고리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직접 거두시는 열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메주고리를 교회가 인준하는 특별한 기적이 있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주고리에의 은총의 기적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메주고리를 통하여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이 그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M

파푸아뉴기니아 헤르만 리치 주교님

파푸아뉴기니아 와바가(Wabaga) 교구 교구장이신 헤르만 리치 주교님께서 지난 9월 초 방문하였다. 리치 주교님은 티롤에서 태어나셨고 20년 전에 주교로 수품되었다. 1964년 젊은 사제로 파푸아뉴기니아의 비신자 지역의 선교사로 파견되어 무에서 유를 일구어냄으로써 교구의 기반을 만들고 그 지역 교구장으로 서임되었다. 현재 와바가 교구에서는 300,000만이 살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카톨릭 신자들이다. 교구장님께서서는 메주고리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현재 제가 말하고 있는 교구에서는 아직 메주고리에에 대해 아는바가 없지만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휴가를 올 때마다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오곤 한 것이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이 두 번째 메주고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였고, 그 때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메주고리에서는 침묵과 평화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곳입니다. 많은 기도를 봉헌하는 곳이며 고해 성사와 성체성사가 매일 봉헌되는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메주고리예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메주고리예의 결실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곳의 열매들은 살아있고 이에 대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며 긍정적이고 신뢰가 가는 열매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활동하시는 성모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발현을 믿습니다. 발현증인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는지 놀라기만 합니다. 이 곳이 저에게 주는 인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비엔나에서 발현증인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모

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발현증인에게 파푸아뉴기니아에는 동정녀의 메시지가 굉장히 늦게 도착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드리고 실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일반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는 메시지에서 선포하는 것에 열려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곳의 메시지들은 완전히 성서에 부합하는 것들이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동정마리아께서는 자주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라"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헌이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함으로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모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문데레사. 이테레사. 은아네스. 황아가다. 송젤뚜르다. 황카타리나. 임현준. 김크리스티나. 김데레사. 김아드리야. 김병순. 최비시아. 손레지나. 엠데레사서데레사 박카타리나. 이베로니카. 소안나. 흥젼마. 임아네스. 임벨라데다. 정젼마. 김켈리. 오수산나. 김울리안나. 최헬레나. 윤벨라데따. 최윤멜라니아. 신바로부부. 이마리아. 김아브라함. 박아네스. 한울리안나. 노안나. 이데레사 송란규 박희. 조안젤라. 유호연 전규경. 오베로니카. 서소피아. 장데레사. 이준영. 흥종숙. 문아네스. 문경자. 유희영. 안진숙. 흥공경. 정화용. 문마르타. 정옥순. 정연희. 임데레사. 윤데레사. 이데레사. 이해웅. 남마리아. 김울리안나. 이근행. 김정연. 안수산나. 최요한. 송바로. 장카타리나. 김동순 금호. 박영희. 이로서. 김진. 이해분. 윤베로니카. Suki Pickett. Gordon Swain. Song Cota. 박 마르타. 정아다나시아. 박프란치스카. 박마리아. 김마리아. 손비비안나. 오엘리사벳. 유루시아. 유베로니카. 이카타리나. 이엘리사벳. 정마르시아. 조 크리스티나. 문데레사. 유 글라라. 조실비아. 전선희.

스콜라스티카 교수. 캘거리 기도회. 미네소타 기도회. 베이사이드 기도회. 밴쿠버 기도회. 김승주 신부님과 제25차 순례단. 신경남 신부님, 윤종식 신부님과 제 26차 순례단.

선교회에서는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후원 회원님들의 가정과 기도 지향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과 메주고리에 순례 때마다 성모님께 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오드리의 신비



호기심에 찬 수 많은 사람들은 오드리 마리아 산토를 두고 신앙적 차원에서 보는 기적 중의 기적인지 아니면 무슨 신비적 현상이 뒷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1987년 8월 9일, 오전 11시 3분에 이 세 살짜리 여자 아이는 할머니 집 수영장에 빠져 거의 죽을 뻔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피노바비탈이라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여 아키네틱 너티즘(함묵증이라는 일종의 병어리)이라는 코마에 빠지게 되었다. 손가락과 눈만 움직일 수 있게 된 작은 오드리는 집에서 숨만 쉬는 송장으로 누워 지냈다.

수많은 이들이 오드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는 기도 속에서 그녀의 엄마 린다는 산소 탱크와 긴 침대, 그리고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딸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에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오드리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순간 그녀의 머리를 '네' 라고 아주 활기차게 끄덕이는 듯 하다가 심장이 멈추면서 거의 죽을 뻔 하는 경험을 했다.

오드리는 사고가 난 후부터 계속 일어나는 신비스런 체험들 때문에 교회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되어 왔다. 이 고통 중의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기적적인 치유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장미 향기, 그리고 많은 영적 회심 등이 일어나고 있다. 오드리를 돌보던 세 명의 간호사들은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례자들, 사제들, 수녀들, 의사들, 그리고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웃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어린 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했다.

오드리의 심장 고동이 급상승하는 것을 관찰한 간호사에 의하면, 오드리는 성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가

지 가장 아픈 고통을 겪는데,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였다고 믿어지는 시간이다. 메주고리에를 다녀온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죠오지 죠이스 사제는 오드리에 대해, 그녀는 '침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였다. 1997년 "작은 오드리 산토" 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한 비디오를 보면 : 이 희생 제물의 영혼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린다 산토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난소암을 가진 여인이 찾아왔는데 오드리는 이 여인의 병을 자기 몸으로 드러냈다. 그 후 오드리의 난소를 방사선으로 찍었는데, 종양은 보이지 않고 "작은 천사"가 보였다. 또 어떤 때에는 오드리의 몸에 빨간 종기들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가족들에 의하면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역반응이라고 한다. 오드리는 또한 오상을 받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다섯 상처가 계속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는 오드리는 다음 세 가지 현상을 통하여 의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12년간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욕창(bedsore)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녀는 숨 쉬는 도구를 언제든지 멈추게 하고 배 속으로 들어가는 영양제를 자유자재로 멈추게 하는데 그 때를 '오드리의 단식 기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자동기는 중력에 의해서 그녀의 배에 음식을 집어 넣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오드리가 단식을 하고 싶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멈춘다. 그 중 가장 이상한 것은 딱딱한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는 오드리가 첫 영성체 때에 그 영성체를 다 삼켰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오드리는 매일 영성체를 모시고 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오드리의 주변에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감실 문에 새겨져 있던 두 천사가 향기로운 기름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무슨 기름인

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기름"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한 오드리 방에 있는 많은 성상들과 사진들이 기름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것들은 피를 흘리기도 한다.

한 번은 과달루페 성모님 성상 선교회가 오드리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첫 방문 때 이 성상의 수호자인 덴 린치는 오드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러면서 그가 오드리의 모든 고통을 자기 선교회를 위해 봉헌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1992년 이 성상 선교회가 첫 방문을 하던 중 주교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그 때 성체에서 피가 흘러 내렸다. 이 때 이 교회에서는 오드리에게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상을 전달하였고 그 때부터 이 성상에서는 기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1994년 오드리가 물에 빠진 지 4년 쯤 되던 해 이 선교회의 성상이 다시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이 성상은 기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1995년 3월 28일 이 성상은 다시 그녀에게 왔고, 1992년 처음 오드리를 방문하였을 때 그녀를 위하여 보관되었던 밧그레하게 물들어 있던 성체는 이 방문 때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1996년 성 금요일 날, 오드리 방에 있던 감실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고 그 즉시 주교님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성체의 기적이 몇 번 일어났는데, 피가 흐른 몇 개의 성체를 독립된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



들은 참으로 '사람의 피'였음이 증명되었다. 지금은 몇 명의 사제들, 의사들, 과학자들, 성서학자들, 그리고 심리학 전문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팀을 모아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성모 마리아의 사건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인 라우런틴 사제는 오드리의 집이 있는 곳은 "깊은 평화로 변화와 치유가 반짝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은 오드리를 방문한 후에 많은 치유와 변화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메사추세츠 메천에 사는 시얼리 파로리시는 오드리 침대 옆에서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녀의 아들 조이는 오토바이 충돌로 다친 후 회복 중이었고 한다. 오드리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아들이 지팡이를 잡지 않고 마중을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사고 후에 혼자 걸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조이는 그냥 걸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냥 걸었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그의 엄마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몸을 9번이나 수술했고 골반이 5개로 조각났으며 다리는 완전히 열려있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작은 오드리 집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걷지도 못했다고 한다.

몇 달 전 채널 7 방송국에서는 작은 오드리의 삶에 대한 방송을 했다. 1999년 4월 7일의 텔레비전 쇼 '언살브드 미스터리스, Unsolved Mysteries' 에서도 그녀에 대하여 보여주었다. 보스턴 피닉스 매거진에서 근무하는 엘린 베리 역시 작은 오드리에 대한 글을 출판했다. 그리고 가톨릭 영화 감독인 존 그로트는 1996년 "오드리의 생애"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M**

태중의 아기들을 위한 기도

지난 4월 25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는 낙태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Pro-Abortion' 행렬에 800,000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이 법이 상정되면 우리의 힘없는 생명들은 처참하게 그냥 죽어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살인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낙태하지 않으신 성모님, 나를 낙태하지 않으신 우리 엄마,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을 낙태하지 않으신 어머니들께 감사하면서, 지금 낙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수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성모님께 청하는 '선거' 기도

오 은총이 가득하신 동정 마리아시며 자비의 어머니여!
가장 시급한 이 시기에 저희 모두는 미국을 당신의 사랑스런 보호에 봉헌하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여,
이 나라를 다시금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키소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악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오는 간절한 호소와 울부짖음으로 당신 품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보호를 청하오니 미약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감을 절실히 깨닫게 하소서. 저희들을 낙태라는 악이 이끄는 살인 행위로부터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느님의 법에 의해 기초를 닦고 세워졌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느님 홀로 우리의 귀한 생명과 자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오 자비의 어머니, 저희들에게 "인공적인 살인" 을 거부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천년기로 인도하소서.

저희들은 당신의 가장 강한 중재에 온전히 의탁하면서 기도 합니다:

"오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여, 기억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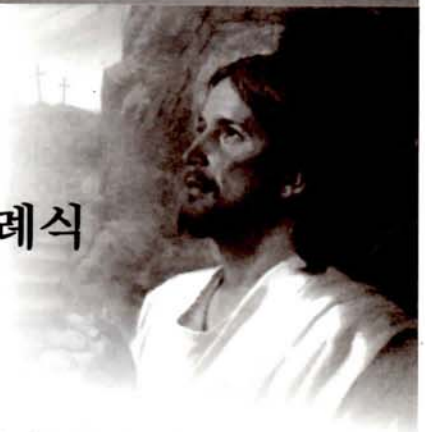
예로부터 어머니 슬하에 달려들어 보호를 청하며 도움을 구하고자 애원하였을 때, 버림 받았다는 함을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믿음에 힘입어, 우리도 당신께도 달려갑니다. 오,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우리의 어머니여, 당신 앞에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며 청하옵니다. 말씀에 잉태하신 어머니시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채 마시옵고 인자로우시어 들어 허락해 주소서. 아멘" **M**

이 기도는 EWIN 사이트에서 펴온 글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하도록 권합니다.



삼일을 살다 간 아기의 장례식

로렌 부부의 이야기



한 생명의 인생을 결정하는 낙태가 마치 간단한 감기 치료하듯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고 병원을 찾으면서도 단지 아직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위로 생긴 힘없는 생명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이기주의로 인해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이 자행되고 있지만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어둠의 세력이 힘 없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주장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증명한 로렌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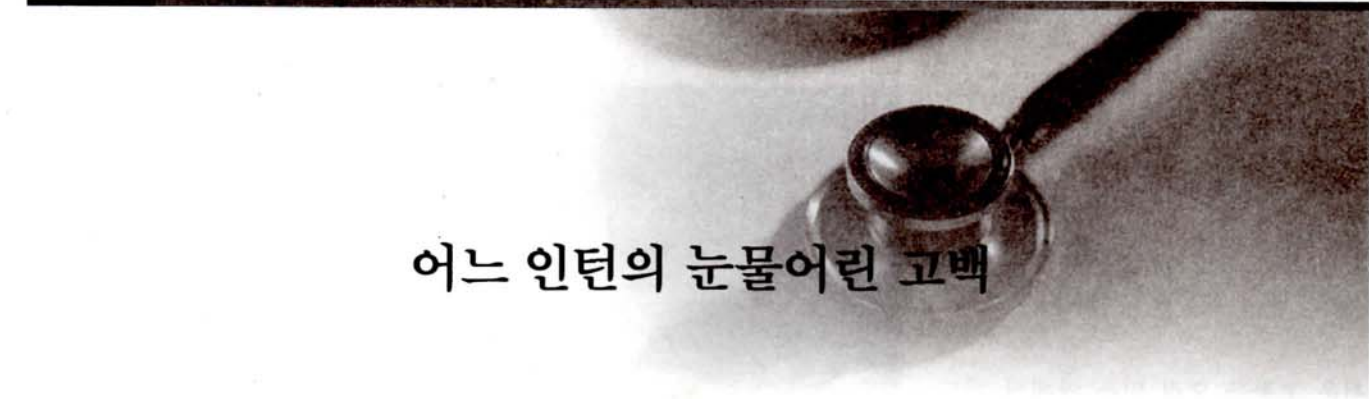
2002년 봄 어느 날 한 젊은 부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개신교신자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자신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도를 부탁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그 아기는 우리 크리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졌던 병명과 같은 같은 염색체의 이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당연히 낙태를 권한다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픔,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장애자로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그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결혼한지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아기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연유산도 경험하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임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를 믿고 허락하신 하느님의 시험은 아직도 많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기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아기의 숨소리에 이상이 있음을 안 의사의 권고로 아기를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두 부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의 염색

체에 이상이 생겨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은 것 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과학적인 정밀 검사를 몇 번 더 받았지만 아기는 염색체의 이상으로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몸의 받침이 되어주어야 할 뼈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의 심장과 몸안의 모든 내장들이 서로 눌리는 상태라서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이 안되고 있어서 아기의 생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의학적으로는 아기의 생명을 구해줄 방법이 없으며 아기가 태어난다 해도 살기 힘들 것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받아 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로렌씨 부부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하루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그 후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지키고자 이들이 겪은 고통은 글이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렌씨의 남편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해 왔습니다. “오늘도 의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아기의 몸은 염색체의 이상으로 뼈가 제 자리를 못 잡고 이곳 저곳으로 겨겨 나와 있습니다. 몸의 기관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뼈가 성장이 안되니 아기의 몸의 모든 내부는 눌리어서 자라지를 못하고 몹시 힘들어하는 아기의 숨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아기는 외모도 정상이라고 하고 태어나도 며칠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서 왜 하필이면 우리냐고 하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아기에게도 하루 종일 울고 사는 로렌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게 없고 위로도 해줄 수 없으니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끝까지 아기를 낙태하지 않고 지키기로 하고 그 무

서운 고통을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겪었던 그 무서운 절망감과 고통을 그 부부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어떤 말과 위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문에 울고 지내던 시간들이 마치 영화 화면 같이 지나가면서 같이 울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 주시는 고통이니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면 아기가 차가운 의료기구로 인해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도망 다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어차피 세상에서 같이 살 아기가 아니라면 최소한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써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함께 기도를 시작했고 소식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크리스의 이야기를 들은 로렌부부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와 이야기 할 시간이 없기에 아기의 이름도 미리 정해서 이름을 부르며 아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꺼히 받아들인 고통과 시련을 매일 매일 하느님께 바치며 눈물 젖은 기도로 지냈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과 고통은 오직 하느님 만이 아시는 제물이었고 하느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묶어서 나무 덩쿨에 올려놓을 때의 심정 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은 까맣게 다 타 버리고 온 몸이 녹아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로렌씨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잠시도 아기를 엄마의 품에서 떼어 놓지 않았습니다. 로렌씨는 “우리아기가 천사같이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아기의 내부는 정상이 아닌데도 외모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치 건강한 아기 같아요. 아마 아기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어 할까봐 위로해 주시려고 정상적인 외모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감사 드려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예쁜



지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아기가 하느님께 갈 때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혀 보내고 싶어서 옷을 사러 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품에서 더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삼 일 후에 자신을 보내주신 하느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삼 일을 로렌부부는 마치 삼십 년 같이 아니 그 보다 더 긴 오직 시공을 초월 하시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시간 속에서 아기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기의 장례식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게 진행 되었습니다. 비록 아기의 몸은 땅속에 묻혔을 지라도 오히려 한정된 유한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영원히 행복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 아기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자신이 살던 하느님의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새겨주고 간 것입니다. 로렌씨 부부와 아기는 이 기심으로 가리워진 죄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하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100살까지 산다 해도 다하지 못할 일을 단 삼 일만에 하고 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와 아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로 잊혀져 가는 하느님께 회심하여 자신들의 삶에 그분의 자리를 다시 마련해 드릴 것 입니다. 로렌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태어날 생명의 소중함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 부부가 고통을 통해 믿음으로 뿌려 놓은 씨앗들이 하느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M



어느 인턴의 눈물어린 고백

그 때 나는 오랜만에 1년 차 (레지던트) 임선생의 허락을 얻어 인턴 숙소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인턴이라면 다 그렇듯 나 역시 누적된 수면 부족으로 온 몸이 흠뻑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리하여 침대에 쓰러지자마자 곧 혼곤한 잠의 늪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이명처럼 아득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뜨고 전화기를 찾았다. 그것은 인턴의 본능이었다. 새벽 3시, 전화기는 성난 개처럼 요란하게 짖어대고 있었다.

"여보시오" 내 목소리에는 졸음과 반항기가 묻어 있었다. 모처럼 곤히 자는 사람을 또 깨우느냐는 항변이었다. "소아과 인턴 선생님이지요." "그런데요." "3년 차 선생님 긴급호출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운 물처럼 내 목 줄기를 타고 흘러 내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나고 묻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음~" 저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 가운 단추를 잠갔다. 감히 3년 차 선생의 호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인턴은 이 세상에 없다. "내 팔자에 편히 잡자기를 고대했다니..."

환자는 병동에서 극성과 아버지로 유명한 박인철씨의 네 살 바깥 아들 지수였다. 하늘같은 3년 차 선생은 내게 배강을 하라고 지시하고 ICU(중환자실) 환자들을 봐야 한다며 가버렸다. 지수는 며칠 전부터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인튜베이션(기관 내 삽관)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배강은 그 튜브에 연결된 고무 백을 규칙적으로 눌러 인공호흡을 시켜주라는 지시였다.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 있는 지수 아버지는 차마 보기 딱할 정도였다. 그는 잠시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아이는 위독한 상태였으며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배강을 시작했다. 1시간이 흘렀다. 무거운 쇠덩이가 눈꺼풀을 내리누르는 것 같은 졸음을 참아가며 배강을 계속했다. 옆친 데 덮친다고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

에 백혈병까지 있었다. 그래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1년 전부터는 우리 대학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없었으며 아버지가 주로 간호를 했고 고모라는 아주머니가 가끔 다녀가고는 했다.

지수 아버지는 악명 높은 보호자였다. 얼굴은 얽었으며 군대에서 다쳤다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40대 사내였다. 오랜 노동 생활로 인해 투박한 모습이었으나 지수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얗고 귀공자처럼 예쁘게 생겼으며 영리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지수는 예뻐했지만 그 아버지가 보통 들볶는 것이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특히면 쫓아왔다. 아이가 열이 난다, 기침을 했다, 토했다, 수액이 안 들어간다, 잘 안 먹는다, 소변을 못 본다, 주사는 언제 놓아주느냐 등등... 별 것도 아닌 일로 바쁜 인턴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이 병원에 환자가 지수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가 계세요 어떻게 아저씨 아들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저 점심, 저녁 다 굶었어요" 나나 간호사들이 핀잔을 하고 성질을 부려도 막무가내였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한 것이 없었다. 필사적이었다. 간호사들과 싸움도 수없이 했다. 간호사들은 아예 표독스러운 '승냥이 아저씨'라고 불렀다. "똑바로 해." 1년 차 선생이 내 등을 쿡 찌르고 갔다. 나는 깜짝 놀라 백 잡은 손에 힘을 넣었다. 2시간이 흘렀다. 이제 졸음은 달아났지만 격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3시간이 흘렀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손바닥에 불이 났으며 손가락이 아파 왔다. 하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지수 아버지와 수시로 왔다 가는 1년 차, 3년 차 선생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나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지수 아버지가 물수건을 갈아주어야 한다며 나갔을 때 아이가 잠시 몸을 비틀며 눈을 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수는 말간 눈빛으로 무언가 찾는 듯 하더니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나는 배강을 계속하였다. 물수건을 갈아 가지고 온 지수 아버지

세상에는 기적도 있는 것인데 지수가 살아났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아이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나의 비겁하고 사특한 마음을 용서 할 수가 없었다.

에게 아이가 잠시 눈을 떴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었다.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탈진 상태였다. 지겨웠다. 어깨와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가는 것 같았다. 날이 밝은 지 오래였다.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려 있었다. 수많은 입원환자들의 CBC채혈 IV(정맥주사) 검사 결과 확인, 차트 정리, 오더 처리 정리, 회진 준비 등. 그런데 이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아침은 물론이요, 점심, 저녁까지 굶고 또 날밤을 새우게 될 판이었다. 내가 할 일을 누가 대신해 줄 것도 아니었다. 아이가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다면 이 지루한 게임이 빨리 끝나고 모든 장비가 철수되기를 나는 바랬다. 어차피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왜 이런 무의미한 시술을 계속 한단 말인가. 아이가 죽을 것이면 빨리 죽어서 일찍 끝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아닌가. 나는 백 잡은 손에 힘을 빼고 그저 건성으로 놀러왔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보호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배깅을 계속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차 선생이 ECG(심전도)를 찍어 가지고 갔다. "제대로 똑바로 해." 3년차 선생은 내게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갔다. 인턴은 어디 무쇠 강철 기계란 말인가. 나도 쓰러질 지경이었다.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윗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힘을 넣어 배깅을 했으며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체 했다. 빨리 끝나기만 바라며 배깅을 했다.

마침내 아침 10시가 되었다. 무려 7시간 동안 배깅을 한 것이다. 그리고 10시가 조금 넘어 취프(4년차 수석전공의) 선생과 담당 스태프(교수)이 왔다. 담당 교수는 아이를 다시 면밀히 청진해 보고, 후래쉬로 눈의 동공 반사를 보고 심전도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익스피어(사망) 선고를 내린 후,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얼굴로 내려갔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이의 몸에 붙어 있던 모든 기계장치들과 수액병, 카테터(도뇨관) 등이 일시에 제거됐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 아버지의 손에서 특하고 물수건이 떨어져 내렸다. 이제 그는 눈물도 말라 있었다. 아이는, 침대 위에 축 늘어진 알몸의 시신

으로 누워 있었다. 지수 아버지의 하얗게 소금 꽃핀 뺨 위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허망함이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병동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허탈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었다. 죽음은 무참한 단절이었다. 이 세상과의 단절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이기도 했다. 벌써 오더리(병원 잡일을 해주는 남자직원) 아저씨들이 하얀 시트를 가지고 와 덮으려고 했다. 시신을 영안실로 내리기 위해서였다. "자, 잠깐만요." 지수 아버지가 제지했다. "선생님, 아들을 제가 집으로 데려 가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핏기 없는 지수의 창백한 이마에 아버지의 부르튼 입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하얀 뺨과 푸르스름한 입술 위에도, 그리고 하얀 뺨 위로 구슬처럼 '톡' 하고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태어나서 한 번도 운동장을 마음껏 뛰어본 적도, 장밋빛으로 빛나본 적도 없는 아들이었다. 행여나 깨질세라 소중히 끌어안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목이 메어왔다. 그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병동은 침묵으로 고요했으며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아빠 너무 딱하다..." 얼굴이 엷은 데에다가 다리까지 절어서 연애는 꿈도 못 꿰보고 막노동판으로 전전하며 돈을 모아, 40살이 넘어 중매로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지수 엄마는 지수를 낳은 직후 산후출혈로 죽었으며 아버지가 혼자 키웠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고생 고생해서 모은 돈도 지수하나 살려보려고 병원 비로 다 날렸고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지수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지수 고모가 커다란 가방에 지수의 소지품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다. 고모도 설새 없이 눈물을 흘려내고 있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지수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선생님들, 간호사 아가씨들 그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굳은살이 박힌 손등을 들어 눈물을 흘려낸 후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오더리 아저씨가 지수의 몸에 흰 시트를 덮어주었다. 나도 그저 꾸벅하고 지수 아버지에게 답례를 했을 뿐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이윽



고 그가 아들을 끌어안고 한쪽 다리를 절룩이며 떨어져 갔다. 고모와 오더리 아저씨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수고했다며 잠시 쉬고 오라는 3년차 선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도망치듯 병동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인턴속 소로 올라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탈한 탄식에 젖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오더리 아저씨였다. "인턴 선생님, 이거 지수 아버지가 선생님께 전해 드리라더군요. 그리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 밤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음료수 한 박스와 봉투를 전해준 오더리 아저씨가 힘없이 돌아갔다. 나는 흰 봉투를 펼쳐 보았다. 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은, 침대에 쓰러져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아도 건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의학의 한계를 얘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했는지 부끄러웠다. 환자와 보호자는 나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정성을 기울였더라면 세상에는 기적도 있는 것인데 지수가 살아났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아이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나의 비겁하고 사투한 마음을 용서 할 수가 없었다. 내게 진정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밤새 안절부절하며 물수건을 만들어 다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던 지수 아버지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금쯤 아내와의 추억이 투명한 빛살처럼 떠도는 집안 어느 구석 엔가 지수를 뉘어 놓고 그 작은 몸뚱어리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건널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내게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돈 봉투는 병원 사무처를 통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재단에 보내 달라고 맡겼다. 그리고 병원 앞 화원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사서 지수가 누워 있던 침대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다. 침대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지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헬리콥터였다. 비행기가 나는 흉내를 내며 까르르 웃어대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헬리콥터를 장미꽃 옆에 놓았다. 지수는 하늘로 올라가 천사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2주가 지났다. 병원의 바쁜 시스템 속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아픔도 서서히 아물어 가고 있었다. 그 즈음 지

수 고모가 찾아왔다. 지수의 사망 진단서를 끊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고모 역시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으며 우울해 보였다. 나는 1년 차 선생의 지시로 진단서를 대필해 주고 있었다.

"지수 장례는 잘 치렀나요? 화장을 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지수 아빠가 어린 지수가 얼마나 뜨거워 하겠냐며 엄마 곁에 묻었어요" "그랬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아빠는 잘 지내시나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 돈까지 주고 가시다니 너무 송구스럽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께서 열심히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래 어디 직장에 나가시나요?" 그러자 고모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닦아냈다. "지수 아빠는 지수 묻고 사흘 만에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 나는 온 몸이 그대로 굳어 버리는 것 같았다. "지수 아빠가..." "지수 없는 세상 너무 쓸쓸하고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지수 곁에 함께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생각하면 불쌍한 동생이에요." 나는 어떻게 진단서를 써 주고, 고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없다. 나는 그대로 어두컴컴한 인턴 숙소로 올라와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물어가던 상처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불행하게 떠난 한 가족을 생각하며 나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진정 지수 아빠만큼, 환자인 지수에게 나는 사랑을 쏟았는가.' 모든 환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때 비로소 나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병동에서 또 나를 호출하고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멀리 히포크라테스 흉상의 두 어깨가 저녁 빛에 젖어 있었다. 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구절들을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겼다. "나는 내 능력을 다하여 환자를 위할 것이며..."

...나는 순결과 경건으로 나의 생애를 보낼 것이며 의술을 시행할 것이다.

...나는 순결과 경건으로 나의 생애를 보낼 것이며..."

M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 벨라데타

메주고리예를 갔다 온 후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눈부신 성모님의 모습은 못 보었지만 함께 순례를 온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안에서 저는 성모님을 만나고 볼 수 있었고 그 때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 바로 성모님께서서는 내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나,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나, 남들은 다 갖고 있는 가정도 아픔이 있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제대로 못해주는 못난 엄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까? 앞이 캄캄하여 통곡하고 울 때, 성모님께서서는 그러한 제 삶 안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때 그것을 못 느꼈다면 나도 우리 아들도 다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했노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우리 아들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엄마와 아빠들의 아픈 마음을 나도 헤아릴 수 있기에 그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성모님 안에서 정말 밝고 기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자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도록 다 변화 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제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기에, 성모님이 나 때문에 겪은 아픔은 나보다 더 크시기에, 나의 어려움보다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기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도록 도와주신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도 힘든데 현존 하시는 성모님을 알리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그 레고리오 형제님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곁에서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하시는 일이니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함께하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 안에서 함께 감사 드리며... M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의 모후시며 자애로우신 인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의 열망과 성자의 대리자인 교황의 요청을 따라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저희를 봉헌 하오며, 저희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가정을 어머니께 맡기나이다.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의 봉헌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온 세상에 대한 어머니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와 모든 가정을 어머니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라나이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천상의 모후이시며 저희 가정의 모후이시여, 저희의 임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과 함께 저희를 다스리소서.

현대의 세속주의에서 저희를 구하시고, 저희 가정이 순결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실천하여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며 영혼들을 위한 열정을 품게 해주소서.

은총의 옥좌이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어머니를 믿으며 저희를 맡기오니, 어머니의 티없이 깨끗하신 성심을 불타게 했던 그 거룩한 불로써 저희도 불타게 하소서.

저희 마음과 가정을 어머니의 성지로 삼으시어, 저희를 통해 예수 성심께서 온 세상 모든 가정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도록 하소서. 아멘

QUEEN OF PEACE MISSIONARY

Our Lady's Monthly Message • May 25th, 2004



"Dear children!

Also today, I urge you to consecrate yourselves to my Heart and to the Heart of my Son Jesus. Only in this way will you be mine more each day and you will inspire each other all the more to holiness. In this way joy will rule your hearts and you will be carriers of peace and lov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Leading Exorcist Warns of Lack of Tools in Dealing With Evil

By Michael H. Brown

On Sunday, Pope John Paul II said the devil is most dangerous when least perceived. "Every man, in addition to his own concupiscence and the evil example of others, is also tempted by the devil, especially when least aware of it," the Holy Father said from the window of his study before praying the midday Angelus. At the same time came word that the Pope recently performed another exorcism. To those who have argued for so long now, especially since Vatican II, that it's best not to mention the devil, and for theologians who have tended to discount the evil one (replacing him with psychology), this had to be a shocker. In one fell swoop, the Pope was indicating that we are only safe when we know where Satan is, and that we have let the devil work in the dark. Indeed, "intellectualism" has all but allowed Satan to roam the world unfettered. What was once known as demonism is now called names like "multiple personality," psychosis, and schizophrenia. While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mistaken legitimate mental illness for diabolical activity (there are legitimate biochemical imbalances), our society has gone to the opposite extreme and as a result has left itself wide open to assault. At the same time, the Church, bowing to that same intellectualism (which replaced mystical theology in the seminaries), has all but neutralized ancient prayers found effective against evil. At least that's the claim of Father Gabriele Amorth, the official exorcist of Rome and one who was present at two of the Pope's exorcisms. Last June, in a startling interview with an Italian publication called 30 Giorni, Father Amorth complained that bishops do not have experience in dealing with evil and have left the Church without proper safeguards, especially in the way of a new Ritual for Exorcists. In fact Father Amorth has called the New Ritual, which he says leaves out prayers that were used

for 12 centuries, "an incredible obstacle that is likely to prevent us from acting against the demon." Among other things, Father Amorth said he was asking "that the prayers might be amended so that invocations to the Virgin, which were completely absent, might be incorporated, and that the number of prayers specifically relating to exorcism might be augmented." "During these last ten years, two commissions worked on the Ritual," Amorth charged. "One was made up of cardinals and was responsible for the Praenotanda, the initial provisions, and the other was responsible for the prayers. I can affirm with certainty that none of the members of these commissions had ever performed an exorcism." Father Amorth charged that exorcists are "very badly treated" and that on one recent occasion when 150 of them had gathered, they were kept away from an audience with the Pope. Moreover, he claims "there is not a single exorcist" in countries such as Germany, Switzerland, Spain, and Portugal -- "a terrifying deficiency." "Out of a hundred French exorcists," he said, "there are only five who believe in the devil and carry out exorcisms. The rest send anyone who gets in touch with them to a psychiatrist." As a result, he claimed, many suffer the rest of their lives in torment. He said the German episcopate sent a letter to Rome declaring that there wasn't even a need for the New Ritual because exorcisms should no longer be performed. He likewise points out that the baptism of children has been watered down with its exorcism "virtually eliminated." These are strong words. They come from someone frustrated. We can't vouch for every perspective. But we can say that the Church has stripped itself bare when it comes to exorcism -- even allowing psychologists, who in large part don't believe in the devil, to determine who should be exorcised! In the new benedictionary, Amorth says references to the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Lord protecting us from evil and prayers to bless schools and homes have been suppressed. "Everything should be blessed and protected, but today there is no longer any protection against the demon." "I will tell you a story," said Father Amorth. "When I met Don Pellegrino Ernetti for the first time, a celebrated exorcist who practiced in Venice for forty years, I said to him, 'If I could speak to the Pope, I would tell him that I met too many bishops who do not believe in the devil.' The following afternoon, Father Ernetti came back to see me and to tell me that he had been received by John Paul II that same morning. 'Holiness,' he had said to him, 'there is an exorcist here in Rome, Father Amorth, who, if he met you, would tell you that he knows too many bishops who do not believe in the devil.' The Pope answered him briefly: "'He who does not believe in the devil does not believe in the Gospel.'" **M**



DEAR FAMILY OF MARY!

Dear Family of Mary!

Here is the message given by Our Lady to Marija! Our Lady urges us. She is insistent and fervent. She seems to know something that we don't know. There is a very important reason why we should become more and more hers each day. I have an image in my mind of Our Lady with her beautiful flowing mantle spread out. She is beckoning us to quickly come in under that mantle, into the safety of her protection and guidance. We are very little, and we don't know what is coming, but she does. And so she is gathering us in, where she can protect us.

Consecration to her Heart is very much coming under her protective mantle. It is the way in which we can submit our entire lives to her care and leadership. I am sure that most of us have made formal consecrations to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St. Louis de Montfort is the great teacher about this consecration. But do we live that consecration in our daily lives? Consecration is

something to be applied to every aspect of our life, on a daily basis.

Sr. Emmanuel gives a very practical teaching about consecration. She says that if we are consecrated to Our Lady, we need to invite her into our home and show her around. We should introduce her to every room in our house. In each room we should ask her opinion. Does she like the furniture? What does she think of the things we do in that room? In the living room, is there a TV? What do I watch on that TV? Does it please her that I watch that show? In the office, do I show her my books? Do I ask her about each one, and get rid of the ones that are not helpful for my spiritual life? Do I promise to read the good ones I have been neglecting? (Especially the Bible!). In the kitchen, do I show her the refrigerator, with all the foods I eat? Would it please her if I changed my diet? In the dining room, I can ask her if she is happy with the hospitality I give to others. Are there people who need my friendship whom I have neglected to have over for dinner? She may ask, where is your prayer corner? Where do you go to spend private time with Jesus each day?

Well, you get the idea. Our Lady is a very practical person, and she wants to be involved in our lives in a practical way. She wants to extend her protection over every part of our lives. Coming under her mantle requires self-examination in her presence. Only then can she protect us.

In my image, I see that once we are inside her mantle, Our Lady will place us all in the Sacred Heart of her Son, Jesus, where we become reborn in His life. This is consecration to the Heart of Jesus! On the practical level I think this means that as we live our consecration to her, Our Lady will lead us more and more to prayer. In prayer, Jesus will take us into His Heart to heal and bless us, and make us new. That newness is what will inspire all those around us to strive for holiness. They will see us living in the peace and order of God, under Our Lady and Jesus' care. And they will be encouraged to come in under Our Lady's mantle too.

Soon joy will rule our hearts and peace will be our constant companion. Today, let's respond to Our Lady's call to consecration in a serious way. She sees how critical it is to protect us from the evil one who is doing his victory dance all over the world. Only under her mantle can we withstand him, and secretly begin to build the kingdom of God in our own lives. It is that kingdom that will one day snatch that victory away from satan,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We, her children, will be part of the crushing of his head if we live our consecration to Mary and Jesus now.

God bless you all!

Cathy Nolan Copyright: Children of Medjugorje 2004 **M**

Little Audrey A Medjugorje Mystery

Thousands of curious people are debating whether Audrey Marie Santo is at the center of religious miracles or if not, what's behind the mysterious phenomenon.

On August 9, 1987, at 11:03 a.m., this 3-year-old girl nearly drowned in her grandmother's swimming pool. An overdose of Phenobarbital at the hospital resulted in a coma like state called Akinetic Mutism. Unable to move (except for fingers and eyes) Little Audrey remains on life support at home. After an outpouring of prayer, Audrey's mother Linda made arrangements to bring her daughter to Medjugorje. Taken on a special stretcher with oxygen tank and other life support equipment, Audrey was brought to the apparition site of Our Lady, in Medjugorje. During the apparition Audrey appeared lively shaking her head yes, then fell into cardiac arrest and almost died. Since the accident, Audrey has been the focus of a series of growing church-related mystical experiences. Miraculous healings, reports of bilocation, the scent of roses, and spiritual conversions have surrounded this suffering child. At least three of Audrey's nurses who were of different faiths converted to Catholicism after caring for her. Countless other pilgrims, priests, nuns, doctors, and skeptics have been touched by God through this little girl who is unable to speak or even smile. Other reported phenomena focus more on the child's status as a victim soul -- a claim made over the last century by a handful of chronically ill women, among them Little Rose, the Stigmatized Ecstatic of Woonsocket, Rhode Island, who developed an intense local following in the 1920s and '30s. Based on observations of Audrey's elevated heart rate, nurses say she suffers acutely between the hours of noon and three on Holy Week, when Christ is believed to have hung on the cross. Her family's "spiritual guide," the Reverend George Joyce, who heard about Audrey after he visited Medjugorje, says that she has been "crucified on her bed." In an interview for the 1997 video *The Story of Little Audrey Santo: The Victim Soul Who Is Bringing People to Jesus*, Linda Santo tells how, when she was visited by a woman with ovarian cancer, Audrey manifested symptoms of the illness; X-rays of Audrey's ovaries, her mother says, showed not a tumor but "a little angel." Another time, Audrey developed a vivid crimson rash;



the family says she was taking on the side effects of chemotherapy for a visiting cancer patient. Audrey also has developed stigmata, in which the five wounds of the crucified Christ spontaneously appear on the body. Unable to eat solid food Little Audrey has baffled medical science by three different phenomena. She doesn't have any bedsores despite remaining in bed for 12 years; she can stop her mechanical respirator from working and she can stop the flow of her feeding tube to her stomach. The latter is called, "Audrey's fasting". The feeding tube automatically feeds Audrey's stomach liquid food by gravity and it is

"impossible" to stop it. Yet, it seems when Audrey decides to fast, it stops. Strangely enough, although she is unable to eat any solid food, on the date of her First Communion she swallowed the Eucharistic Host. Since this time she receives the Host daily. Over the years the mystical happening surrounding Little Audrey have escalated. On several occasions, the two gold engraved angels on the tabernacle door have wept fragrant oil. Scientists have not yet been able to classify some of the oils, stating its origin as "unknown." Numerous other religious statues and pictures in Audrey's room have also wept oil and sometimes blood. The Missionary Image of Our Lady of Guadalupe has made many visits to Audrey's home. During an early visit, Guardian of the image, Dan Lynch, came within a few inches of Audrey's face and told her he loved her. He asked her to please offer all of her sufferings for this apostolate. A tear fell from Audrey's eye. During a Mass celebrated by a Bishop during the first visit of the Missionary Image on January 1992, the host began to bleed. The apostolate gave Audrey an image of Our Lady of Guadalupe, and soon after, the image began weeping tears of oil. The Missionary Image returned to Audrey's home for the anniversary of her drowning in August 1994. The Image began to profusely weep tears of oil. On March 28, 1995 the image again returned. The host that had turned a reddish tinge and that had been reserved for Audrey since the Image's first visit in 1992 began to bleed. On Good Friday, 1996, the tabernacle in



Audrey's room began bleeding, prompting the Bishop to state his plans to open an investigation. Several Eucharistic Miracles have taken place. Blood from some of the miraculous communion hosts tested by an independent laboratory has proven to be "human blood." Several priests, doctors, scientists, theologians, and psychologists are part of the team of specialists independently investigating these supernatural events. Father Rene Laurentin, world-famous Marian expert, states that within Audrey's home reigns "a deep peace where conversions and healing sparkle." There have been many accounts of healings and conversion associated with a visit to see Little Audrey. Sheryle Parolisi of Methuen, Massachusetts became a believer after praying at Audrey's bedside in hopes that the 71 one pound teen could help. Sheryle accounts that her son Joey was recovering from injuries suffered in a motorcycle crash. When she returned home from Audrey's house her son met her at the door without his cane or crutches. "It was the first time he could walk on his own since the accident," she says. Joey told his mother, he just had a feeling he could walk, and he did. After nine surgeries to repair his battered body, his pelvis which was shattered in 5

places, and a leg which was torn wide open, he was not able to walk until after the prayer session at Little Audrey's home. Just a few months ago, Channel 7, Boston did a report on Little Audrey. On April 7, 1999, the television show, "Unsolved Mysteries" did a segment about her as well. Ellen Barry from the Boston Phoenix magazine has recently published an article on Audrey. John Clote, a Catholic filmmaker has directed a 1996 documentary called, "Audrey's Life." [Click here for Pictures from Audrey's](#)



An Election Prayer to Mary

O Most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Mercy, at this most critical time, we entr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your loving care. Most holy Mother, we beg you to reclaim this land for the glory of our Son. Overwhelmed with the burden of the sins of our nation, we cry to you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and seek refuge in your motherly protection. Look down with mercy upon us and touch the hearts of our people. Open our minds to the great worth of human life and to the responsibilities that accompany human freedom. Free us from the falsehoods that lead to the evil of abortion. Grant our country the wisdom to proclaim that God's law is the foundation on which this nation was founded, and that he alone is the True Source of our cherished rights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O Merciful Mother, give us the courage to reject the "culture of death" and lead us into a new Millennium of Life. Trusting in your most powerful intercession, we pray, Remember, O most gracious Virgin Mary, that never was it known that anyone who fled to thy protection, implored thy help, or sought thy intercession was left unaided. Inspired by this confidence, we fly unto thee, O Virgin of virgins, our Mother. To thee do we come, before thee we stand, sinful and sorrowful. O Mother of the Word Incarnate, despise not our petitions, but in thy mercy hear and answer us. Amen



▶ 축하 드립니다!

그 동안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지도를 맡아 주시던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뉴욕 포담 대학에서 종교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모님의 사도로서 헌신 해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신부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성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 드립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은...

- 1)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시는 편지는 보내주시는 그대로 메주고리에의 순례 때 발현 목격자인 비스카에게 전해드립니다.
- 2) 전화나 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는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난에 기재됩니다.
- 3) 미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향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선교회의 자문 신부님들께서 정성껏 봉헌해드리며 성모님의 발현 때 봉헌됩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

캐나다 지역에서도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지역에서 소식지를 받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와 전화로 연락하시면 직접 보내드립니다.

강 막달레나 자매님: 전화번호: 416-222- 2776
주소: 59 Clarinda Dr. North York, ON. M2K 2V2 Canada
캘거리 지역 이 데레사 자매님: 전화번호: 403-288-0469

▶ 메주고리에 소식지 자원봉사자 안내

각 지역에서도 무료로 배부되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전하는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로 연락주세요.

▶ 메주고리에 후원안내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현재 21호까지 190,000여부를 발행, 무료로 미주 전지역 및 캐나다 그리고 한국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님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본 선교회의 소식지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통해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소식지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있는 다음에 있는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거나 혹은 각 본당의 봉사자들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기 위하여 일을 하시면서 푼푼이 모아 두었던 돈을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쓰도록 후원금으로 봉헌해 주신 양호계 안드레아, 오찬임 엘리사벳 부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윤양수 요셉, 유경히 베로니카, 주황룡 프란치스코, 문영애 데레사, 문평길 요한, 문경자 유스티나, 이준영 콜배, 이해인 데레사 부부님들과 캘거리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열심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표지 설명: 발현 산의 청 십자가 메주고리에에는 성모님의 발현 초기에 공산당의 집권 하에 있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발현 산에서 아이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으나 공산당원들이 6명의 발현 목격자들을 발현 산으로 못 가도록 했을 때 성모님과 아이들이 비밀리에 만났던 장소이다. 지금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이반에게 발현하실 때 기도회가 이 곳에서 있고, 이 곳은 청 십자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주소가 펜실바니아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자문위원단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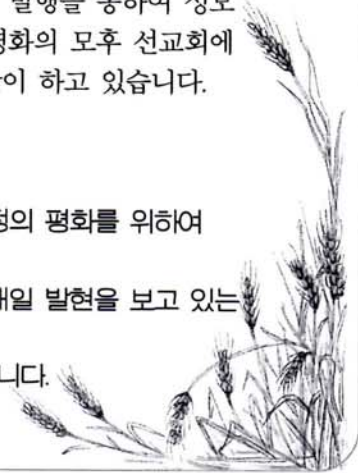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5. 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6. 메주고리에 관련 책 번역 및 출판 보급
- 7.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관련인사 및 메주고리에 목격증인 초청 강연회 개최

성모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단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무료 배부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의 봉사자님들은 전화나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 E-mail : qpmm2003@hanmail.net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_____ 영문 : _____ 영세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H) : _____ 전화(O) : _____ Fax : _____

E-mail : _____ 소속분당 : _____

해당란에 표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 _____ 기존회원 () 새회원 ()

보내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문의전화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LA 지역: 친 모니카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323-730-1499)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

www.qpmm.org

미국

남 그레고리오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 E-mail : gregorynam@hotmail.com

한국

어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 아파트 102동 505호
Tel. 031-878-7362 / HP. 017-795-3535 / E-mail : hhk2123@hanmail.net